"동물 도살 그만!" 美 불교단체는 방생 열풍



경매에 오른 염소들. 사진출처=gofundme



동물 방생에 관한 기도문을 읽고 있는 링툴 린포체.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방생된 염소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서양불교 단체들이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막기 위해 '방생(放生)'을 토대로 나섰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4월 9일 사육·도살되는 동물들이 불교 단체들에 의해 자유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링툴 린포체(Lingtrul Rinpoche)는 3만4000달러(한화 약 3600만원)를 모금해 318마리의 염소를 살렸다. 그리고 이때 방생캠페인을 주최한 이시스 하오는 올해 다시 염소들을 살리기 위해 모금에 착수했다. 최대한 많은 염소를 구하겠다는 목표다.

링툴 린포체는 모금액으로 노던 캘리포니아서 진행되는 라이브경매를 통해 도살될 위기의 염소들을 샀다. 티베트 불교 닝마 종단의 현 종정인 카톡 게체 린포체(Kathok Getse Rinpoche)는 이 모금행사에 엄청난 액수에 돈을 기부키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에 있는 닝마 종단 센터인 오갠 도르제 덴(Orgyen Dorje Den)은 경매로 새 보금자리를 찾은 318마리의 염소의 운반을 도왔다.

이렇게 구매, 운반된 염소는 '고츠 아러스(Goats R Us)'로 간다. 이는 부부인 테리 오이알순과 에곤 오이알순의 사업체로 방생 단체이자 동물 보호소로 볼 수 있다. 하오는 "고츠아러스는 갈 곳을 잃은 모든 동물들을 데려와 치료해주고 돌봐준다.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남은 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방생해주는 단체다"고 평가했다.

오이알순 부부는 최근 1만 마리가 넘는 염소떼와 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형 산불에 의해 초목이 불타 고립된 염소들을 구조해 온 것이 크다. 실제로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9천회 이상의 산불이 있었으며, 138만 에이커(약 17억 평)가 불탔다. 이때 수많은 동물들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도살 위기 동물 구출에 불교 단체들 적극 나서 생태계 교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생 진행

방생은 불교서 내려오는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등 살아있는 것들을 사서, 자연에 놓아주어 살려 주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래서 이 불교단체들은 새로운 방생법을 고안했고, 동물들을 직접 품어주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생을 하지 않으면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4월 미국 노스빌과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불교 명상센터'는 송아지 고기가 될 뻔한 4마리의 어린 송아지들을 구출해 방생했다. 명상센터를 보조하는 한 커플이 우유와 계란을 사기 위해 한 농장을 방문했다. 커플은 농장에 걸려있는 송아지 고기 광고에 대해 물어보았다. 농장주는 "젖소라면 우유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운다. 하지만 숫송아지는 도축한다"고 마침 곧 네 마리의 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아지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커플은 명상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기꺼이 5천 달러의 돈을 지불해 송아지의 생명을 구했다. 곧 송아지들은 펜실베니아의 '인드라로카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센터에 상주하는 콧타와 난다(Kottawa Nanda)스님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제품들을 절약하는 것만 해도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며 방생과 생명존중이 불교수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인드라로카 동물 보호소의 운영자 인드라 라히리는 "보통 구조한 단체가 우리 보호소로 연락이 오지만, 이번은 농장주가 직접 연락을 줬다. 농장주가 생명보호라는 불교의 사상에 기꺼이 찬성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라히리는 미래에 도축되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대량 남획되는 해양 생물들에 대한 보호도 계획 중이다.

일례로 노바 스코티아에 있는 캄포 비구니 승원(Gampo Abbey)는 매년 바닷가재 시즌에 포획되는 가재들을 구매, 걸프만으로 옮겨 바다에 방생하고 있다. 바닷가재들이 다시 포획됨을 막고 동시에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 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방생은 불교의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수행임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점점 서구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 새 명소 탄생… '로쿠야 대불' 완공

12m로 일본서 2번째 대불
이름 뜻은 '녹야원'서 유래
40년 전 스승님 원력 이어
현 주지 스님이 대불 회향



'스푸트니크 재팬'은 4월 11일 일본의 수도 도쿄 교외에 높이 12m의 대불<사진>이 완공됐다고 보도했다.

도쿄도 교외의 히노데쵸(日の出町)의 사원 호코지에 세워진 12m의 대불은 대좌를 포함하면 18m의 높이, 5년간에 걸쳐 총공비 4억엔에 조성됐다. 이 대불은 가마쿠라 대불(11.3m)을 제치고 나라의 토다이지 대불(14.98m)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불이 됐다.

대불의 조성은 호코지의 선대 주지스님이 포교 원력을 세워 40여 년 전에 발안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 현 주지인 야사카 료쥬(八坂良秀, 64)스님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다. 료쥬 스님은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함께 수행하던 도반을 여럿 잃고 말았다. 그들과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건립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불상은 청동제로 2013년 야마가타시(山形市)의 주조공장에서 각 부분별로 주조했다. 2017년 가을 모든 부분을 절에 가져와서 조립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대불의 이름은 로쿠야대불(鹿野大佛)로 호코지 측에선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굴리신 녹야원에서 이름을 따왔다. 마침 대불이 세워진 언덕의 이름도 로쿠야가오카(鹿野ヶ丘)"라고 전했다.

모든 공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산 위의 대불을 보고 참배 문의가 끊이지 않아, 4월 11일 대중 공개를 결정하였다. 공개당일은 오전부터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아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옆 도시에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 참배객은 "산뿐인 이 지역에 갑자기 이런 명소가 생겼다. 경치도 좋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에 감동했다"고 감상을 밝혔다.

지자체 측에서도 이 대불이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료쥬 스님은 "이 대불을 참배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편안함을 얻기를, 또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이 마을이 평화롭기를 기원한다"며 대불이 완공된 의미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석가모니 진신사리 대중에 최초 공개

220년 만…콜카타 인도 박물관서

치아사리와 수정 사리구를 보유했으나 이를 공개치 않았던 인도박물관이 불교미술전시관을 확장하고 진신사리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화제다.

인도 신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4월 9일 콜카타의 인도 박물관(The Indian Museum)이 비공개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사리구를 대중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리는 함께 발굴된 석조사리함의 명문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로 확인된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 최근 고고학적 연구에서 핍프라와 불탑이 부처님의 입적 후 최초로 세워진 근본8탑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해외 관람객들이 사리를 소장했다는 이유로 인도 박물관을 방문하지만 공개한 바 없어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런데 이젠 발길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인도 박물관이 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불교미술전시관 확충과 동시에 진신사리를 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정사리구. 출처=인도 박물관

박물관은 1898년 영국인 고고학자 윌리엄 펩페가 핍프라와(Piprahwa) 불탑 유적에서 발굴한 두 과의 치아사리와 수정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한 번도 대중 공개를 한 적은 없었다. 또 아쇼카 대왕의 치세였던 3세기와 불교미술이 꽃을 피웠던 굽타시대의 불교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제쉬 푸로힛(Rajesh Purohit) 박물관장은 "소장중인 모든 유물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람객들에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둘러볼 수 있는 동선을 짜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불교유물 중에선 가장 귀한 진신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새롭게 확충될 전시관은 부처님의 일생을 360도로 둘러 볼 수 있는 형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시될 유물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고대 조각들과 불탑의 부조들인 것으로 전했다. 또 근현대 인도 예술가들이 그린 불교설화에 관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푸로힛 박물관장은 "이곳 콜카타는 오래전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 여행을 시작하는 관문이었다. 특히 태국, 미얀마, 일본 등 불교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오는 불교신자들도 이곳을 인도순례의 시작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순례의 시작을 사리친견으로 시작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리공개의 배경에는 네팔과 오랫동안 논쟁중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의 인도소재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투는 현재 인도의 핍프라와 유적과 네팔의 틸라우라코트 유적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일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설립 안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그동안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는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국내·해외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2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with ASIA 이사장 ·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 원 합장

• 후원동참 방법 : 현금후원(일시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 토지 및 부동산 후원 등
• 후원동참 안내 : 부산은행 101-2054-2067-00 국민은행 125001-04-109908
농 협 351-1001-9652-33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 후원해 주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사무국 | 051)624-1244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